

‘청명 목포’ 만들기...미세먼지·대기오염 잡는다

시, 27억 투입 저감사업 본격 추진
친환경차 보급·노후 경유차 폐차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지원

목포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배출을 낮추기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목포시는 20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 허용 기준이 강화돼 총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네가지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공업사·목욕탕·건조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업소가 목포지역에만 102곳에 달한다.

이 중 올해 5억4900만원을 지원해 18개 사업장에 대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지시설 설치 지원금은 노후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의 90%까지(자부담 10%) 지원되며, 업소당 3000만원 한도다. 올해부터는 비산배출시설로 육내 도장시설 운영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발생하는 가스화확물질이 인체

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를 채집하는 설비(2중호스)를 설치해 사전에 예방하는 게 사업 취지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모든 주유소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목포지역 주유소는 총 44곳. 이 가운데 연간 판매량이 2000t 미만인 32곳이 지원 대상이다. 목포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13곳에 유증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1개 주유소당 평균 800만~8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판매량이 많은 대형 주유소 12곳은 2022년까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친환경차량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총 61대 8억84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총 20대 460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보급 사업에 총 4대 9840만원, LPG 화물 신차 구입 지원 사업에 총 40대 1억 60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에 총 26대 1억3000만원 등이 지원된다.

목포시는 지난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LPG 1톤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122대 11억64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4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 대기오염원 발생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목포시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 화학물질을 채집하기 위해 13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2중 호스) 설치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해 사업비 6억7500만원을 세워 총 420대 분량을 조기폐차에 나선다.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25대 8640만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3대 33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2대 3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목포시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3개 사업

에 총 916대 15억7600만원을 지원했다.

김형석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장은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상반기 중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37명 늘린다

아동학대·재난안전 전담인력 등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이 1259명에서 1296명으로 37명 늘어난다.

목포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인력으로 가장 많은 24명(행정 22명, 사회복지 2명)이 증원된다.

이어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위한 전담인력 9명(사회복지 9명)과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전담인력 1명(간호 1명) 등 10명이 늘어난다.

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으로는 재난안전 전담(상황실 운영) 1명(방재 1명), 주민참여 예산제 전담 1명(행정 1명), 공무원직(비공무원) 대응 전담 1명(행정 1명) 등 3명이 총원된다.

이들의 직급은 8급 1명과 9급 36명으로,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이 1160명에서 1197명으로 조정된다. 증원에 따른 소요 예산은 14억4500만원으로 추산됐다.

김명원 목포시 자치행정과장은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시행 등 새롭게 생겨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의지를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해빙기 여객선 사고 예방

등대 102기 특별점검

목포해수청, 다음달 20일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해빙기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여객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주요 항로상 등대시설을 특별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목포구등대 등 등대 32기, 등부표(부유식) 53기, 등표(고정식) 17기 등 총 102기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수리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수리계획을 수립해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지난해 동절기에 점검한 시야해 등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주요 항로상 등대 108기 중 수리가 필요한 시설 약 10기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 해역은 전국 대비 43%인 68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인 곳이며, 짙은 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여객선이 다니는 주요 항로상 등대를 철저히 점검해 안전한 배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도시재생사업 서산동 보리마당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국비·도비·시비 77억 들어

2개동 103세대 5월 착공

목포시 서산동 보리마당으로 유명한 서산초등학교 인근 부지(서산동 19-10번지 일원)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목포시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나로 구생어린이집 인근에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산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공공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18억원과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3억원, 전남개발공사 47억4000만원 등 총 77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연면적 7500㎡에 2개 동(1동 3층, 2동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103세대다. 1층에는 작은 도서관, 복지시설, 노인편의시설 등 공공편의시설이 들어서고 2층부터 4층까지가 순환형 임대주택이다.



목포시가 서산동 보리마당 구생어린이집 인근에 총 103세대 규모의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을 조성한다. (점선부분이 임대주택이 들어설 사업 대상지)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토지 4필지와 건물 2동에 대한 협의 보상을 마쳤고 이달 부터 철거에 들어가 5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목포해경, 다음달 2일부터 실시

목포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일부터 목포해경 내 PC시험장에서 202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1일 2회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또 매주 첫째주 토요일에는 오전에 시험장을 운영함으로써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실기시험은 다음달 7일부터 전남나주조종면허시험장과 영암군 전남서부조종면허시험장, 목포시 전남요트조종면허시험장에서 치른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에서 모터·고무보트·수상 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하며, 종류는 1·2급 일반조종과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된다.

한편, 지난해 관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필기시험에 1424명이 응시하고 658명이 합격해 46.2%의 합격률을 보였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